

## 교육수준별 혼인표의 비대칭성으로 살펴본 남녀불평등지수

이명진\*

본 연구는 교육수준별 혼인표에서 나타나는 남녀 결혼의 비대칭성을 조사하여 남녀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가정은 남녀간의 불평등이 존재할 때는 남자가 결혼하는 유형과 여자가 결혼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녀불평등 정도가 큰 사회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지위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혼인표의 비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모형과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남녀불평등지수의 차이에 미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 남녀불평등 정도의 차이에 관한 중요한 이론으로 논의되는 두 가지 이론은 산업화론과 정치/문화이론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7여개의 교육수준별 혼인표가 분석되었다. 가설검증과 같은 방법으로 엄격하게 이론의 타당성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분석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덜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일수록 남녀불평등의 정도가 작다. 둘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치제도가 선택결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도 적어도 결혼과 관련하여 남녀불평등 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남녀불평등과 관련요인의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수정된 산업화이론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화의 진척에 따라 남녀불평등 정도가 작아진다. 동시에 몇몇 국가에서는 그 나라 특유의 정치제도가 문화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 정도에 따른 남녀 간 사회적 지위의 감소 등을 강조하는 기존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단순히 산업화의 정도가 그러한 경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핵심단어:** 결혼, 비대칭성, 혼인표, 남녀불평등지수, 로그선형분석, 산업화론

---

\* 국민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지금까지 남녀간 불평등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 내용과 기법도 다양하다.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 교육과 의료부문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측정한 연구가 있는가하면, 국회의원, 행정관리자 같은 정치부문이나 혹은 소득, 직업 등 경제부문의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연구도 있었다(김미숙, 1990; 조순경, 1990; Blackburn et al., 1993; Blackburn et al., 1995; UNDP, 2000). 이중에서도 특히 1990년 이후 유엔개발기구에서 발표하는 여성개발지수(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나 여성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Index)는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UNDP, 2000). 정부와 각종 기관, 언론과 단체에서 남녀불평등의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이 지수들을 가장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공식지표를 이용한 이러한 지수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첫째, 비교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회불평등과 관련한 연구는 절대적인 차이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비교사회연구가 필수적이다. 특정한 시점이나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녀불평등 정도만을 측정해서는 의미가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힘들다. 그 정도가 다른 시점이나 사회에 비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지수들이 시간적인 비교나 국제비교를 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Dijkstra and Hanmer, 2000; Oudhof, 2000).

둘째,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기법적용이 적절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종류의 지수들은 일종의 복합지수(composite index)이다. 따라서 어떻게 개별 지표들을 지수에 반영할까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

\* 본 논문은 2002년도 국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초고는 2001년 여름 한국사회학회 인구도시연구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유엔이 1999년에 발표한 남녀불평등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개발지수를 기준으로 세계 174개국 중 30위, 여성권한지수를 기준으로 102개국 중 78위로 평가됐다(UNDP, 2000).

하다. 그런데 여성개발지수나 여성권한지수 같은 지수들은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절대적인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입과 같이 각 사회의 차이가 많이 나는 지표가 이들 지수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Dijkstra, 2000; Dijkstra and Hanmer, 2000).

셋째, 여성개발지수나 여성권한지수 같은 공식지표들을 이용한 지수들은 관련 분야에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남녀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그 원인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 지수들은 남녀불평등의 원인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를 진척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

넷째, 이들 지수들은 남녀불평등이 나타나는 영역 중에서 일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불평등은 객관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공식통계가 포함하지 못하는 다른 사회 부문에서 객관적 혹은 주관적인 남녀간 불평등 정도가 잘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결혼유형도 남녀불평등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한 사회의 결혼유형은 그 사회의 계층간의 관계와 남녀간의 지위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써 계층구조의 총체적인 측면을 잘 나타낼 수 있다.<sup>2)</sup> 당사자의 결혼 후의 사회 계층에 영향을 주고, 결혼 당사자나 가족 간에 부, 위신, 권력 같은 사회적 보상의 교류(transaction)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피해가면서 남녀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남녀의 결혼유형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지위 수준별 혼인표(marriage table)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여자가 결혼시장과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평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이러한 혼인표의 비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모형과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불평등지수의 원인을 몇 가지 중요한 이론과 결부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결혼관련업체가 발표하는 신랑감 혹은 신부감 직업순위는 그 당시 사회 전체의 선호직업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서는 신랑감의 경우는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공무원, 공기업, 외국계 회사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선일보, 1998).

## II. 이론적 배경

어느 사회나 전통, 문화, 역사에 따라 나름대로 형태의 결혼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결혼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배우자 선택과 관련해서는 개별사회의 수만큼 그 형태가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느 사회도 어떤 시대에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배우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한 배우자 선택은 결혼 당사자 자신이거나 가족, 친척 등 다른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규제는 곧 결혼 상대자간의 어떠한 형태의 결합(association)을 형성케 한다. 특히 우리가 그러한 규제가 계층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나 계층구조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sup>3)</sup>

그런데 우리는 관점을 달리하여 결혼유형을 연구할 수도 있다. 사회적 지위나 계층구조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회적 지위 차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즉, 남녀간 사회적 지위 혹은 남녀불평등 정도가 큰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남녀간의 결혼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여자가 같은 지위의 남자보다 배우자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여러 사회에서 발견된다. 지위가 다른 남녀가 결혼할 경우, 남자가 결혼하는 유형과 여자가 결혼하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Guttentah and Secord, 1983; Lichter, 1990).<sup>4)</sup> 특히, 남녀불평등 정도가 큰 사회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지위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따라서 사회의 남녀불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남자가 지위가 낮은 여자와 결혼하는 확률이 지위가 높은 여자가 지위가 낮은 남자와 결혼하는 확률보다 높은 비대칭적인 결혼유형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남녀불평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계층의 형태와 추이에 관한 최근의

3) 일반적으로 남녀간의 지위차이(status distance)가 클수록 그들간의 사회적 결합(social association)인 결혼 정도가 작아지고, 동시에 유사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선택결혼(assortative marriage)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Becker, 1974; Becker, 1981; Blau et al., 1993).

4) 한국사회에서 나이가 중요한 사회적 지위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최근의 여자가 연상인 경우인 부부가 많이 생겨나는 현상은, 이러한 시각에서는 남녀불평등 정도가 작아지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조선일보, 2000).

이론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론인 산업화론은 경제발전과 기술적 발전이 귀속성(ascription)과 특수성(particularism)에 근거를 둔 전통적인 관계를 붕괴시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이론은 그러한 발전이 계층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져다주고, 그러한 다양성이 성취성(achievement)과 보편성(universalism)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Davis, 1948; Goode, 1964; Treiman, 1970; Inkels and Smith, 1974; Kelly, 1978; Kelly et al., 1980; Hirshman and Wong, 1984). 이러한 주장을 따르자면, 산업화의 정도가 다른 국가들은 남녀불평등의 정도도 달라야 한다. 즉 한 사회가 발전할수록 대표적인 귀속적 지위인 성으로 인한 남녀간 결혼유형의 차이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론인 정치/문화차이 이론(political/cultural difference theory)은 정치와 문화의 차이를 중시한다. 이 이론은 산업화 정도가 각국의 결혼 유형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한다(Ultee and Luijkx, 1990). 아울러 산업화론이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정책과 정치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정치/문화차이 이론은 산업화론이 각 사회가 경험해 온 독특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치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도 이질적인 계층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Conner, 1979; Goldthorpe, 1980; Stephen, 1980; Ultee and Luijkx, 1990). 따라서 남녀불평등의 정도도 단순히 산업화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독특한 정치경험이나 문화적인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Ⅲ. 연구모형 및 자료

#### 1. 연구모형

##### 1) 대칭모형과 의사대칭모형

연구기법으로 주로 로그선형분석(log-linear analysis)을 채택한다. 대수선형분석은 주로 교육수준, 종교처럼 범주로 구성된 변수들(명목변수 혹은

서열변수)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에 매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종전의 방법론은 범주변수들간의 관계를 단순한 백분율 차이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즉, 두 개의 범주변수로 이루어진 표의 각 칸의 백분율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면, 이를 보고 변수간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반면에, 대수선형모형을 통해서, 연구자는 분석대상이 되는 표의 실제 빈도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가정하는 예상 빈도수를 산출하는 선형식(linear equation)을 가정할 수 있다. 이식은 원래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와 그들 변수간의 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연구자가 변수들간의 어떠한 결합형태를 상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요인을 배제한 변수들간의 결합에만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수선형모형의 특징은 3차원 이상의 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Kim and Lee, 2001).

본 연구에서는 분할표 상에서 남자들이 결혼하는 형태와 여자들이 결혼하는 형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형을 사용한다. 이러한 대칭과 비대칭을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형이 대칭모형(symmetry model)과 의사대칭모형(quasi-symmetry model)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형은 정방형(square) 분할표에만 적용된다. 의사대칭모형은 대칭모형의 기본가정을 변형한 모형이다. 대칭모형은 각 칸의 확률을  $\pi_{ij}$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pi_{ij} = \pi_{ji}.$$

<그림 1> 대칭모형의 모수

	대 학	고 등	중 등	초 등
대 학	-	1	2	3
고 등	1	-	4	5
중 등	2	4	-	6
초 등	3	5	6	-

여기에서 대각선 한 쪽에 모든 칸의 확률은 다른 한 쪽 모든 칸의 확률과 동일하다. 아울러 대각선상의 확률은 제외하거나 대각선상의 모든 범주에 대해 각각 한 개의 모수를 적용하여 분석한다(Haberman, 1979; Agresti, 1984; Agresti, 1990). <그림 1>은 이러한 대칭모형의 모수를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대칭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면 대칭모형의 가정을 변형할 수 있다. 사실 대칭모형은 실제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많은 경우에 행누계분포(raw marginal distribution)와 열누계분포(column marginal distribution)가 분할표의 각 칸의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누계분포문제를 해결한 모형이 바로 의사대칭모형이다.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og \mu_{ij} = \lambda + \lambda_i^X + \lambda_j^Y + \lambda_{ij}$$

여기에서  $\lambda_{ij} = \lambda_{ji}$  이다. 이 모형은 대칭모형에 비해 약간 복잡하다. 대각선상 칸의 확률과 비대각선상 칸의 확률에 대해서는 대칭모형과 동일한 가정을 하지만 행과 열의 누계분포는 다르다고 가정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누계분포의 영향만 없다면 남녀간의 결혼 유형은 대칭적이라고 보는 것이다(Lindsey, 1989; Agresti, 1990).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주요 모형으로 의사대칭모형을 사용한다.

## 2) 요약지수

일반적으로 로그선형모형을 이용해서 두 개이상의 분할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방법은 각 분할표에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고 모수(parameter)를 비교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이론적 모형이 단일모수만을 포함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실 단일모수만을 포함하는 모형은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이점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형은 실제자료를 분석하기에서는 너무 단순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다수의 모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복수의 모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표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모수가 단일한 형태의 비교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Clogg and Eliason, 1987). 더욱이 본 연구의 주요 모형으로 사용하는 의사대칭모형은 다수의 모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분할표를 비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두 번째 방법은 로그선형모형을 이용하면서 여러 개의 분할표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종의 요약지수를 측정한다. 이 방법은 L2-거리척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L2는 일반적으로 적합도(goodness of fit)로 사용된다. 바로 이러한 적합도가 모형과 실제자료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측정치라고 볼 수 있다(이명진, 2000). 따라서 혼인표에 의사대칭모형을 적용해서 산출되는 L2는 실제 자료가 의사대칭모형에서 상정하는 이론적 모형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자면, 행과 열의 누계분포의 영향을 제외하면, 남녀간의 결혼유형이 동일하다 혹은 대칭적이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대칭모형과 실제자료의 차이를 비대칭성(asymmetry)이라고 할 수 있다. L2-거리척도가 바로 이러한 비대칭성을 측정한다. 물론 이러한 요약지수가 분할표에 나타나 있는 복잡한 내용을 다 표현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하나의 지수로 남녀불평등 정도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관심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 2. 자료

본 연구는 다양한 나라에서 얻어진 사회적 지위수준별 혼인표를 사용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27개의 분할표들이다. 이러한 자료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인도<sup>5)</sup> 등이 포함되고, 북미에서는 미국, 캐나다가 포함되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표들은 기존 논문, 자료 파일 등으로부터 얻어진 것으로, 여러 차례 각종 비교조사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이다. 한 국가에서 여러 개의 표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다(Verba et al., 1978; Tominaga, 1979; ISSP, 1987; 한국사회학회, 1988; Ultee and Luijkx, 1990; Smits et al., 1998).

5) 인도의 경우는 다른 사회에 비해 유독 같은 지위를 가진 남녀간의 결혼이 우세하기 때문에, 비대칭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표 1> 원자료의 출처 및 특징

국가	년도	자료성격		
		사례수	출처	원자료 종류
벨기에	1983	2,432	UL	Social Survey
영국	1949	5,533	UL	Mobility Survey
호주	1981	30,276	UL	Census
체코슬로바키아	1980	30,299	UL	Census
캐나다	1981	1,122,304	UL	Census
핀란드	1972	5,522	UL	Household Survey
스웨덴	1981	4,148	UL	Level of Living Survey
프랑스	1959	1,646	UL	Social Survey
	1981	60,000	UL	Social Survey
뉴질랜드	1981	543,521	UL	Census
네덜란드	1959	10,000	UL	Census
	1983	2,808	UL	Life Satisfaction Survey
헝가리	1987	2,963	UL	Census
스코틀랜드	1973	3,844	UL	Scottish Mobility Survey
독일	1982	6,670	UL	Social Survey
폴란드	1982	1,880	UL	Survey of Household
오스트리아	1981	1,729,065	UL	Census
이탈리아	1979	2,325	UL	Poverty Survey
유고슬라비아	1971	2,622	VNK	Social Survey
아일랜드공화국	1973	1,437	UL	Social Survey
미국	1987	1,567	ISSP	Social Survey
노르웨이	1972	747	UL	Election Study
덴마크	1972	733	UL	Welfare Survey
북아일랜드	1973	1,759	UL	Social Survey
일본	1965	1,704	TM	SSM survey
나이지리아	1967	1,686	VNK	Social Survey
한국	1988	2,011	KSA	Social Survey

주: VNK= Verba et al. (1978)

TM= Tominaga (1979)

ISSP= ISSP (1987)

KSA= 한국사회학회 (1988)

UL= Ultee and Luijkx (1990)

원자료의 성격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인구 센서스자료(캐나다, 핀란드, 호주 등)가 있는가 하면, 사회계층조사(스코틀랜드, 일본), 선거조사(독일), 생활수준 조사(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국제비교연구(인도, 나이지리아, 미국)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자료의 성격상

각 표가 포함하고 있는 사례수도 백 만명에서 천명까지 다양하다. <표 1>에서는 이러한 각 자료의 특징과 출처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남녀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교육수준이다. 각국의 교육제도의 특징이나 역사적인 경험이 다름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만큼 다른 지위변수에 비해 비교적 공통점이 많고 비교가 수월한 변수도 없을 것이다. 각국의 남녀간 결혼유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대학, 고등, 중등, 초등 4개 범주로 나뉜 교육수준별 혼인표를 사용한다.<sup>6)</sup>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모형을 각국의 자료에 적용하기 위해서, 남녀불평등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는 다른 개념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각국 혼인표의 사례수차이가 미치는 영향이나 남녀간의 교육수준차이나 분포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 이들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표준화(standardization)기법을 사용한다. 물론 이러한 표준화 기법은 분할표 내부의 특징을 변질시키지는 않는다(Bishop et al., 1974).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표준화 기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표준화 기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첫 번째 기법은 각 혼인표를 표준화하는 표본크기 표준화기법이다. 특히 대부분의 혼인표의 사례수와 유사하고 분석에 편리한 1,000명을 기준으로 사례수를 표준화한다. 두 번째는 이중표준화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표본사례수 표준화기법을 사용하기 동시에 각 범주의 사례수는 250명으로 고정한다. 이렇게 하면, 각 분할표의 사례수, 행과 열의 누계분포를 동일하게 고정할 수 있다(이명진, 2000).

#### IV. 분석결과 및 토의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남녀불평등지수를 측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녀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힘들다.

6) 물론 이러한 자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일한 조사들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본 분석을 위해 수집된 2차자료라는 것이다(Archer, 1989).

하지만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덜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일수록 남녀불평등의 정도가 작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나라에서는 결혼유형의 비대칭성의 정도가 작다.

<표 2> 국가별 남녀불평등지수

국가	년도	남녀불평등지수		
		이중표준화	표본크기표준화	여성개발지수
벨기에	1983	0.10	35.57	0.921
호주	1981	0.75	34.60	0.927
체코슬로바키아	1980	0.75	39.71	0.841
캐나다	1981	0.77	63.11	0.932
핀란드	1972	1.02	22.08	0.913
스웨덴	1981	1.15	35.66	0.923
프랑스	1981	1.49	67.50	0.914
뉴질랜드	1981	1.79	95.91	0.900
네덜란드	1983	2.26	28.64	0.919
헝가리	1987	2.79	25.00	0.813
스코틀랜드	1973	2.86	31.12	0.914
독일	1982	5.38	64.46	0.905
폴란드	1982	5.79	82.70	0.811
오스트리아	1981	6.86	98.34	0.901
이탈리아	1979	7.12	147.23	0.895
유고슬라비아	1971	8.29	15.31	-
아일랜드공화국	1973	8.52	123.06	0.896
미국	1987	9.84	130.33	0.927
노르웨이	1972	12.08	122.00	0.932
덴마크	1972	12.44	153.79	0.909
북아일랜드	1973	30.56	170.46	0.914
일본	1965	34.33	17.15	0.916
나이지리아	1967	42.15	10.62	0.425
한국	1988	43.99	180.78	0.847

주: 1) 여성개발지수는 1998년도에 발표된 지수이다.  
 2) 여성개발지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가장 유사한 사례로 다음과 같이 대체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 스코틀랜드 (영국); 북아일랜드 (영국).

<표 2>는 각 국의 이중표준화와 표본크기 표준화기법으로 산출한 남녀 불평등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주된 결과는 이중표준화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남녀불평등지수에서 나타나 있다. 표본크기 표준화기법으로 산출한 지수는 참고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표의 마지막 열에는 1998년 유엔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여성개발지수도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함께 제시한 이유도 자료나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녀불평등지수와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지수를 참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다.

<그림 2>는 이중표준화기법으로 산출한 남녀불평등지수를 정렬하여 보여주고 있다. 가장 표준화표본크기 표준화나 이중표준화의 경우가 약간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비교적 산업화 정도가 높은 나라에서 남녀의 지위가 다를 때, 성별에 의한 결혼유형이 다르지 않거나 그 정도가 작다. 산업화 정도가 높은 벨기에(1983), 호주(1981), 캐나다(1981), 핀란드(1972), 스웨덴(1981)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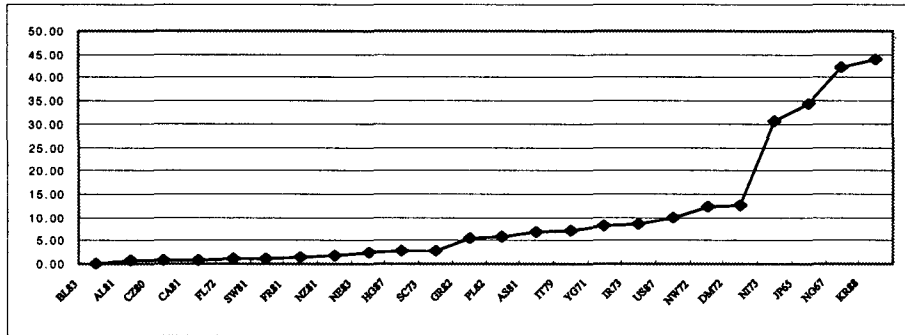
둘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치적 특성이 선택결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같은 정치제도는 남녀불평등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비교적 남녀불평등 정도가 낮은 체코슬로바키아(1980), 핀란드(1972), 스웨덴(1981), 헝가리(1987) 등 남녀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의 경우는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나 국가사회주의 같은 정치제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7)</sup>

셋째,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도 적어도 결혼과 관련하여 남녀불평등 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이나 일본같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 교육, 연령 같은 사회위계에 대한 강조는 다른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지위가 낮은 결혼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sup>8)</sup> 이러한 점은 유사한 산업화 정도를 보이는 사회들을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7) 물론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구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여성개발지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 이유는 여성개발지수를 구성하는 주요지표가 수입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여성개발지수 점수가 낮고, 남녀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일반적으로 한국사회가 1988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90년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림 2> 국가별 남녀불평등지수



주: AS81= 오스트리아 1981; FL72= 핀란드 1981; SW81= 스웨덴 1981; NE83= 네덜란드 1983; FR81= 프랑스 1981; PL82= 폴란드 1982; NW72= 노르웨이 1972; GR82= 독일 1982; 1972; BL83= 벨기에 1983; SC73= 스코틀랜드 1973; NZ81= 뉴질랜드 1981; HG87= 헝가리 1987; US87= 미국 1987; CA81= 캐나다 1981; JP55= 일본 1955; IR73= 아일랜드공화국 1973; AL81= 오스트레일리아 1981; YG71= 유고슬라비아 1971; CZ80= 체코슬로바키아 1980; DM72= 덴마크 1972; IT79= 이탈리아 1979; NI73= 북아일랜드 1973; KR88= 한국 1988; NG67= 나이지리아 1967

<표 3>는 실질 1인당 GDP(단위: US 달러, 1985년 가격기준)로 산업화 정도를 측정하였을 때, 산업화 정도가 유사한 사회들의 남녀불평등 지수를 보여준다. 표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유사한 산업화 정도를 보이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남녀불평등은 많은 차이가 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산업화 정도가 다른 나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남녀불평등지수를 보여준다. <그림 3>은 이중표준화기법으로 산출된 남녀불평등지수를 정렬하여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남녀불평등과 관련요인의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수정된 산업화이론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화의 진척에 따라 남녀불평등 정도가 작아진다. 동시에 몇몇 국가에서는 그 나라 특유의 정치나 문화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 정도에 따른 남녀관계의 개방성, 유연성 증가에 대한 기존

9) 세계은행이 국가별 자료(109개 국가)를 이용하여 남녀평등과 경제성장간의 관련성을 거시 경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남녀불평등과 산업화와 역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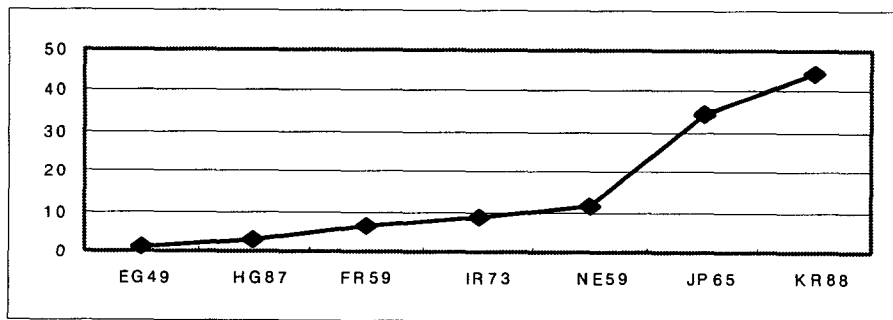
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단순한 산업화의 정도가 그러한 경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나 국가사회주의 같은 정치제도나 정책도 남녀불평등 정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적 위계를 강조하는 동아시아권의 문화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산업화정도가 유사한 국가별 남녀불평등지수

국가	년도	남녀불평등지수	
		이중표준화	표본크기표준화
영국	1949	1.36	26.47
헝가리	1987	2.79	44.19
프랑스	1959	6.08	47.86
아일랜드공화국	1973	8.52	28.96
네덜란드	1959	11.49	88.76
일본	1965	34.33	84.94
한국	1988	43.99	332.72

- 주: 1) EG49= 영국 1949 (\$5,400); FR59= 프랑스 1959 (\$5,503); HG87= 헝가리 1987 (\$5,650); IR73= 아일랜드 공화국 1973 (\$5,601); JP65= 일본 1965 (\$5,391); NE59= 네덜란드 1959 (\$5,606); KR88= 한국 1988 (\$5,916).  
 2) 산업화 정도는 1인당 실질 GDP(단위: US 달러, 1985년 가격기준)로 측정되었다(Summers and Heston, 1991)

<그림 3> 산업화정도가 유사한 국가별 남녀불평등지수



- 주: 1) EG49= 영국 1949 (\$5,400); FR59= 프랑스 1959 (\$5,503); HG87= 헝가리 1987 (\$5,650);  
 IR73= 아일랜드 공화국 1973 (\$5,601); JP65= 일본 1965 (\$5,391);  
 NE59= 네덜란드 1959 (\$5,606); KR88= 한국 1988 (\$5,916).  
 2) 산업화 정도는 1인당 GDP로 계산되었다(Summers and Heston, 1991)

참고문헌

- 김미숙(1990), "성분절 지수에 나타난 한국 취업여성의 지위: 1960-1980," 송호근 편 《노동과 불평등: 노동시장의 사회학》 서울: 나남.
- 이명진(2000), "한국사회의 선택혼," 《한국사회학》 제34집 여름호, 297-324.
- 조순경(1990), "한국여성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시론: 생산직 여성노동력," 송호근 편 《노동과 불평등: 노동시장의 사회학》 서울: 나남.
- 조선일보(1998), "역대 최고의 신부감은 여교사," 10. 26.
- \_\_\_\_\_ (2000), "연상여 연하남 커플 급증," 8. 16.
- 한국사회학회(1988). 《지역발전연구》 서울: 한국사회학회.
- Archer, Margaret S.(1989), "Cross-National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Educational Systems," 242-262 in *Cross-National Research in Sociology*, edited by Melvin L. Kohn. Newbury: Sage Publications.
- Agresti, Alan(1984), *Analysis of Ordinal Categorical Data*. New York: John Wiley & Sons.
- \_\_\_\_\_ (1990), *Categorical Data Analysis*. New York: Wiley & Sons.
- Becker, Gary S.(1974), "A Theory of Marriage" 299-344 in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Edited by Theodore W. Schultz.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ishop Yvonne M., Stephen E. Fienberg, and Paul W. Holland(1975), *Discrete Multivariate Analysis: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MA: MIT Press.
- Blau, Peter M., Terry C. Blum, and Joseph E. Schwartz(1983). *Crosscutting Social Circles: Testing a Macrostructural Theory of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Clogg, Clifford D. and Scott R. Eliason(1987), "Some Common Problems in Log-Linear Model."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 pp. 8-44.
- Dijkstra, A. Geske(2000), *A Larger Pie through a Fair Share?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Performance*. Institute of Social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No. 315. The Hague: Institute of Social Studies.

- Dijkstra, A. Geske and Lucia C. Hanmer(2000), "Measuring Socio-Economic Gender Inequality: *Toward an Alternative to the UNDP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Feminist Economics* Vol. 6 No. 2, July.
- Blackburn, R.M., J. Jarman and J. Siltanen(1993), "The Analysis of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Over Time and Place: Considerations of Measurement and Some New Evidenc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7(3), 335-362.
- Blackburn, R.M., J. Siltanen and J. Jarman(1995), "Measuring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Current Problems and a New Approach,"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58, pp.319-331.
- Blau, Peter M., Terry C. Blum, and Joseph E. Schwartz(1983), *Crosscutting Social Circles: Testing a Macrostructural Theory of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Guttentag, Marcia, and Paul E. Secord(1983), *Too Many Women?* Beverly Hills: Sage.
- Goldthorpe, John(1980),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Oxford: Clarendon Press.
- Haberman, Shelby J.(1979),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New York: Academic Press.
- Inkeles, Alex and David Smith(1974), *Becoming Moder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Program(ISSP)(1990),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Program: Social Inequality*, 1987. Ann Arbor: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
- Kim, Jae-On Kim and Myoung-Jin Lee(2000), "Tabular Analysis," pp. 3107-3128 in *Encyclopedia of Sociology*, edited by B. F. Borgatta, New York: Macmillan.
- Lichter, Daniel T.(1990), "Delayed Marriage, Marital Homogamy, and the Mate Selection Process among White Women," *Social Science Quarterly* 71, No. 4.
- Oudhof, Ko(2000), "The GDI as a Measurement Instrument on Gender Aspect of Development in the ECE Region,"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Working Paper No. 4.

Smits, Jeroen, Wout Ultee, and Jan Lammers(1998), "Educational Homogamy in 65 Countries: An Explanation of Differences in Openness Using Country-Level Explanatory Variab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264-285.

Stephens, John D.(1980), *The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Atlantic Highlands: Humanities Press.

Summers, Robert and Alan Heston(1991), The Penn World Table (Mark 5): An Extended Set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1950-198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327-368.

Tominaga, Ken'ichi(1979), *The Structure of Social Stratification in Japan*.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in Japanese]

Treiman, Donald(1970),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Pp. 207-234 in *Social Stratification*, edited by E. O. Lauman. Indianapolis: Bobbs-Merrill.

Ultee, Wout C. and Rudd Luijkx(1990), "Educational heterogamy and Father-to-Son Occupational Mobility in 23 Industrial Nations: General Societal Openness or Compensatory Strategies of Reproduc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6: 125-149.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NY: Oxford University Press.

Verba, Sidney, Norman Nie, and Jae-On Kim(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asuring of Gender Inequality:  
Asymmetry of Marriage Table with respect  
to Educational Level**

Myoung-Jin Lee

This study examines cross-national patterns of asymmetry of marriage tables with respect to educational level and tries to measure the degree of gender inequality across nations. A primary assumption of the study is that gender inequality inhibits symmetric marriage between men and women. As men and women differ more in status, the rate of symmetric marriage between them declines thus producing asymmetric marriage with respect to social status. More specifically, the main object of the study is to develop statistical models and index with which to assess the patterns and degree of asymmetric marriage. Additionally, it is intende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several theoretical perspectives for explaining these variations identified by the statistical models. Two most important such perspectives are industrialism and theory of politics and cultur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relies on twenty-seven marriage tables with respect to educational level, some from published tables, and some extracted from other sourc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1) compared to less industrialized countries, more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lower degrees of asymmetric marriage (gender inequality) with respect to educational level, and (2) other things being equal, differences in politics and culture seem to have the some impact on marriage pattern; for instance, social democracy and state socialism reduce the degree of asymmetric marriage while the high emphasis on gender-based hierarchy in Asian countries seems to increase it. In short, these results suggest a weaker or modified version of industrialism. That is, while with economic growth most nations show a decline in the degrees of asymmetric marriage with respect to social status, for some nations the degrees of asymmetric marriage are affected by their specific politics or cultures.

Key Words: marriage table with respect to educational level, asymmetry,  
gender inequality index, log-linear analysis, industrialism